

# e스포츠 산업 급성장... 1년 새 15% 증가 830억 규모

(2016년 기준)

## 콘진원 '2017년 조사 보고서'

지난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1년새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국내 e스포츠 산업의 실태를 진단·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830억 3000만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고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폰서 시장 212억 ... 축구·야구 이어 3위

프로선수 연봉 평균 9770만원... 52% 늘어

"e스포츠 알고 있다" 48.2% 인지도 높아

스폰서 시장 규모는 212억원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축구, 야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아울러 우리나라 e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방송이며, 전체의 44.8%에 해당하는 총 372억 30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밖에 ▲구단 예산(212억 7000만원) ▲스트리밍 및

포털 분야(136억 4000만원) ▲온·오프라인 매체(62억 9000만원) ▲상금규모(4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규모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산출한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16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33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173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

다. 생산유발효과는 2015년도 1413억 원에서 15.9% 상승했으며, 방송·스트리밍과 포털의 생산유발효과도 크게 증가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5년 544억원 대비 14.1% 상승했다.

e스포츠 프로선수의 연봉은 2017년 평균 977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406만 원에서 52.5% 늘어난 수치로, 해외 진출 후 복귀한 선수들과 기존 스타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역대 연봉자가 다수 배출되면서 평균 연봉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플레이어연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세계적인 흥

행은 국산 게임의 글로벌 e스포츠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내 1인칭 슈팅게임(FPS) 장르 최초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난 8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이용자 랭킹 1위를 달성했다. 8월 26~28일에는 e스포츠 대회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이 총 상금 35만 달러 규모로 개최됐다.

이밖에 e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취미활동 전반과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e스포츠를 매우 잘 알고 있다(13.4%)',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4.8%)'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e스포츠를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1%에 달했다. e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기만족이 있으며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국 e스포츠 실태조사 결과 외에 글로벌 e스포츠 현황 및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싱가포르 최대 유통 체인점인 NTUC 페어프라이스에 문을 연 'K-Fresh Zone'이 현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 매장은 30여 품목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aT는 신선농산물 수출과 판매망 확보를 위해 관련 매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aT 제공>

## aT, 싱가포르에 국내 농산물 판매장 문 열어

### NTUC 페어프라이스 매장 3곳 'K-Fresh Zon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는 12일 싱가포르 최대 유통 체인점인 NTUC 페어프라이스에서 딸기와 포도, 버섯 등 30여 품목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K-Fresh Zone'을 열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절대 수입국이며 1인당 GDP는 우리의

2배 수준으로 충분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다.

하지만,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딸기, 배 등 일부 품목만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선농산물은 짧은 유통기간 때문에 신선상품 수입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아 그동안 국내 유통 신선농산물은 초도 수출에 어려

움을 겪었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 최대 유통매장인 NTUC 매장에 한국 신선농산물 30개 품목을 신규 수출하고 판매·홍보하는 K-Fresh Zone을 설치하게 됐다.

기존에 수출되던 계절과일인 포도, 멜론, 단감, 감귤, 사과, 딸기, 배 뿐 아니라 파프리카, 호박, 배추 등 싱가포르 시장에서 유명한 각종 채소류를 수출·판매하는 등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 정기적인 시식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한국 신선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SNS와 버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병행을 통해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N-TUC 페어프라이스 매장 3곳에 K-Fresh Zone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상류층을 타깃으로 하는 유통업체 '월드 스토리'에도 확장하는 등 매장을 10여 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동남아 시장 히트상품으로 성장시켜 생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애호박·딸기·토마토 등 채소·과일값 하락세

### 비닐하우스 재배 늘어

### 농촌경제연구원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채소가격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통 겨울철이면 출하량이 감소해 채소나 과일의 가격은 비싸지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이소박이김치 주재료인 백다다기오이(100개)의 이달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614원에 비해 하락한 4만~4만4000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오박(20개) 가격도 풍작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 1만8932원보다 하락한 1만4000~1만7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5만1192원에 거래됐던 일반꽃고추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10kg)은 2만7000~3만1000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청양계핏고추 출하량은 감소하지만

소비부진 탓에 가격은 작년 동월의 3만5212원보다 낮은 3만1000~3만5000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인 딸기(2kg) 가격도 올해 풍작을 맞아 작년 동기 2만2563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떨어진 2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토마토(5kg·9000~1만1000원)와 대추형 방울토마토(3kg·1만1000~1만3000원)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반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시세는 1만7783원과 1만8681원이었다.

배 가격(15kg)은 2만5000~2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264원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과의 경우 10kg 가격이 작년 2만3728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인 2만3000~2만5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노지감귤(1kg)과 단감(10kg) 가격은 각각 1450~1660원, 2만6000~2만9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돼 작년 같은 기간 노지감귤 1413원, 단감 2만4277원에 비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사학연금공단, 나주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 포상금 활용 가방덮개 제작 배부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12일 나주 빛가람초등학교에서 나주시 교육지원청, 나주 경찰서, 빛가람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혁신 성과로 수상한 포상금을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1월 수상한 '2016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 포상금을 활용해 '교통안전 가방덮개'를 제작하고 125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소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